

## 믿었던 선수들 부진 악순환 '4강 좌초'



### '디펜딩 챔피언' KIA엔 없었다

- 1 내부 경쟁
- 2 우승 효과
- 3 타이밍

지난 시즌 가을 야구의 주인공이었던 KIA 타이거즈가 올핸 남의 잔치를 지켜봐야만 하는 민망한 처지가 됐다.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우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KIA의 2010시즌에는 경쟁, 우승효과, 타이밍이 없었다.

부임 첫해 미래에 초점을 맞추며 전력구리에 고심했던 조범현 감독은 지난해에는 '변화와 경쟁'을 화두로 내세웠다. 명성보다는 컨디션에 따른 기용을 강조했던 조 감독의 전략에 안치홍, 김상현이라는 새 얼굴의 활약이 더해지면서 '경쟁'은 KIA 신바람 행진의 원동력

이 됐다.

안치홍은 시범경기에서 0.073의 타율을 기록하며 극도로 부진했지만, 이용규의 부상으로 생긴 연세 공백에 투입돼 차근차근 입지를 넓혀가면서 2루를 꿰찼다. 최연소 미스터 올

만에 만루홈런으로 화끈한 신고식을 치르며 팀 타선의 대변화를 유도했다.

안치홍의 손끝에서 시작된 경쟁구도는 김상현의 가세로 한층 물이 올랐다. 내부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KIA의 집중력이 무섭게 발휘됐다. 경쟁의 결과는 성적으로 나타났다.

### 변화보다 안정... 지난해 틀 그대로 올 시즌 맞이 사라진 승부 근성에 의욕상실 겹쳐 팬들도 답답

스타, 프로야구 통산 5번째 10대 두자릿수 홈런 기록을 쓴 안치홍은 수비까지 일취월장하면서 내야 지각변동의 주역이 됐다.

LG에서 친정 KIA로 돌아왔던 김상현도 잠자던 타선을 깨웠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독하게 방망이를 든 김상현은 트레이드 1주일

하지만 올 시즌 KIA의 '깜짝스타'는 탄생하지 않았다.

시즌 초반 성적이 신통치 않자 KIA는 안정적인 행보를 택했다. '변화와 경쟁'을 통한 새 틀이 아니라 우승을 이뤄냈던 지난해의 틀이 그대로 2010시즌에 적용됐다.

2010년의 주전 선수들은 컨디션 하락과 부상으로 제 역할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라운드를 지켰고, 신예선수들에게는 가능성을 점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믿었던 선수들의 부진 악순환은 계속됐고, 경쟁의 불리한 고지에 선 선수들은 '조급함'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KIA는 잠재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동력을 찾는데 실패했다. 내부의 움직임이 무뎠으면서 성적도 함께 정체됐다.

순위 싸움에서 멀어진 후반기 뒤늦게 진흥속의 진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졌던 전반기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신종길·최훈락 등이 후반기 좋은 활약을 선보이며 KIA 타선에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 팬들도 무명선수들의 열성적인 플레이와 파이팅에 모처럼 답답함을 풀었다.

경쟁을 통한 변화에 실패한 '디펜딩 챔피언'의 2010시즌이 아쉬움 속에 저물어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구단 수입도 양극화

롯데 309억 최고... KIA 99억

71%를 차지했다.

롯데, 두산, LG 등 서울과 부산에 연고를 둔 3개 프로야구 구단의 수입이 전체 프로야구 구단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 편중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롯데, 두산, LG 등 3개 구단이 지난해 거둔 수입은 829억원으로, 자료를 공개한 7개 구단(넥센 비공개) 수입 1165억원의

전체 구단 수입의 69.7%였다. 지난해 구단별 수입을 살펴보면 롯데가 3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 265억원, LG 255억원 순이었다. KIA(99억원), 한화(98억원), SK(88억원), 삼성(51억원) 등은 100억원에 못미쳤다. 또한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프로야구 구단은 롯데와 두산 등 2개 구단에 불과했다. 롯데와 두산은 모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난해 각각 34억3600만원, 1억17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연합뉴스

### 박찬호 끝내기타 맞고 패전

미국프로야구 아시아 투수 최다승에 도전했던 박찬호(37·피츠버그 파이어호크)가 끝내기 안타를 맞고 패전 투수가 됐다.

박찬호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 방문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연장

10회 등판, 2루타와 끝내기 안타를 퍼프 허용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평균자책점은 5.02에서 5.16으로 올라갔고 시즌 성적은 3승3패가 됐다.

전날 신시내티와 경기에서 적시에 터진 타선 덕분에 개인 통산 123승째를 거두고 노모 히데오와 함께 아시아 최다승 투수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박찬호는 여세를 몰아 이날도 이틀 연속 구원승을 노렸다. /연합뉴스



원손 테니스 천재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4일(한국시간) 끝난 US오픈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를 꺾고 정상을 밟았다. 나달은 역대 7번째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연합뉴스

## 나달, 커리어 그랜드슬램

### 여배우 에이스 박지은 4번째 세계대회 우승

#### 조코비치 꺾고 US오픈 정상

세계랭킹 1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US오픈을 정상을 정복하고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나달은 14일(한국 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킨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대회 US오픈 테니스대회 마지막 남자단식 결승에서 노박 조코비치(3위·세르비아)를 3-1(6-4 5-7 6-4 6-2)로 제압했다.

나달은 그동안 프랑스오픈에서 5번, 윌블던에서 2번 정상을 올랐고 지난해에는 호주오픈도 우승했지만 유독 하드코트에서 열리는 US오픈에서는 2003년부터 7년 연속 출전하고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나달은 8번째 도전인 이번 대회에서 드디어 정상에 올라 4개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정복하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역대 7번째 선수가 됐다. 최근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선수는 지난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로 그 이전에는 앤드리 애거시(1999년·미국)와 로드 레이버(1969년), 로이 에머슨(1964년) 등이 있다.

나달은 이번 우승으로 1969년 로드 레이버가 한 시즌에 4개 메이저 대회 모두 우승한 이후 41년 만에 한 해에 3개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선수로도 기록됐다. /연합뉴스

'한국 여류배우의 에이스' 박지은이 호주주 복병 헤이저자 돌풍을 잠재우고 개인 통산 4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달성했다.

박지은은 9단은 14일 중국 강소성 수저우시 공룡산 망호루 특설대극실에서 열린 제1회 공룡산빙성배 세계여자 바둑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호주대표로 출전한 헤이저자(黑嘉嘉) 초단을 맞아 흑으로 183수만에 불계승 거뒀다.

박지은은 이로써 2003년 정관장배, 2007년 대리배, 2008년 원양부동산배에 이어 4번째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여제로 군림하고 있는 루이 나이웨이 9단에 이은 최다우승 2위 기록이다. /연합뉴스

Go on a Trip! TrekSta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마음의 문을 박차고 나가  
세계의 숨결과 향기를 느끼고 싶다면  
Go on a trip! 트렉스타

**PREMIUM EVENT**

트렉스타 고어텍스자켓을 구매하시면,  
**필파워600**  
**덕다운자켓**을 드립니다!

※ 본 행사는 트렉스타 대리점 백화점 및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2010 가을/겨울 신규제품에 한해서만 진행됩니다.  
※ 다운자켓 수량 소진시 행사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SEEK | 시크(남성용) EOS | 이오스(여성용)

**트렉스타 고어텍스자켓**

- 입체 패턴을 사용해 슬림한 피팅감
- 최상의 투습성, 방수성, 발수성과 경량성
- 고어텍스 프로셀코로 최적인 신체 상태 유지
- 프린트 방수지퍼 헬싱 디자인 포인트

트렉스타 광주·전라도 지역 대리점 및 백화점			
대리점	전화번호	백화점	본부
광주	062-652-6624	롯데광주점	051-309-3663
광안점	062-945-3393	현대광주점	02-863-2586
송정점	063-857-3663	현대광주점	02-861-6370
익산점	063-857-3663	백화점	
전주점	063-284-5809	롯데광주점	
진남점	061-727-1118	현대광주점	
순천점	061-243-1417		
목포점	061-663-0231		
여수점			
제주점		제주시점	
		백화점	
		064-723-6777	
		062-221-1624	
		082-510-7712	

www.treksta.co.kr